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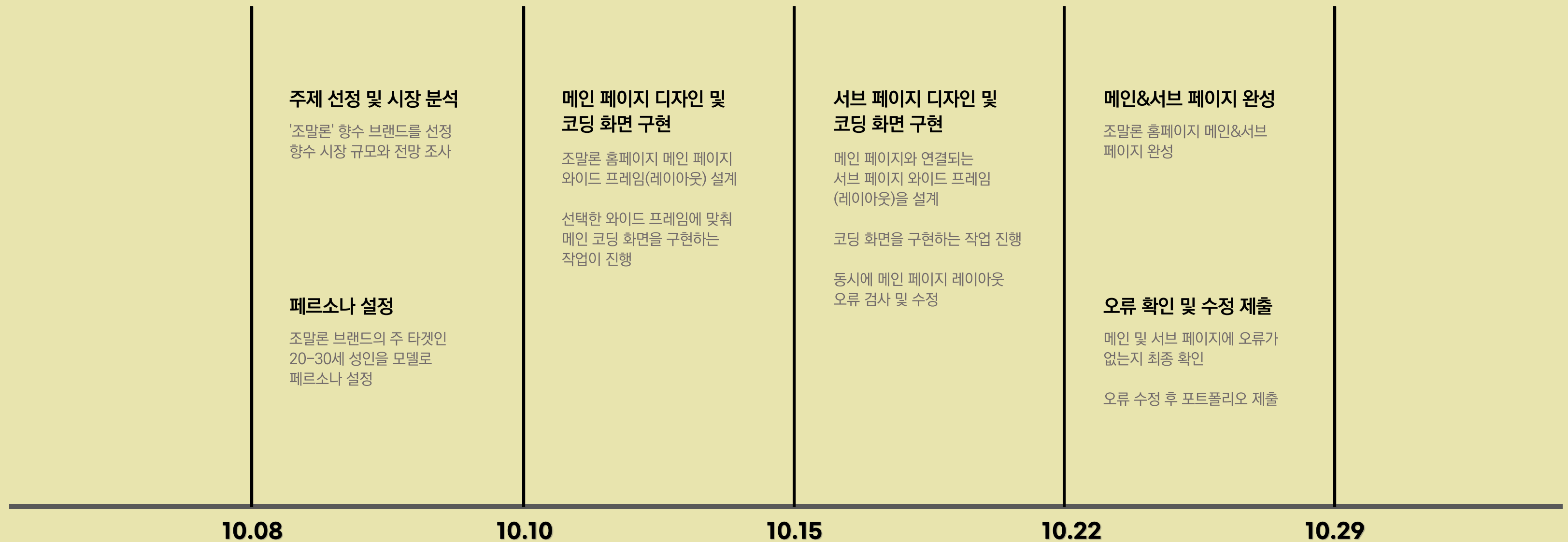
Jo Malone London PROJECT

2021.10.08–2021.10.29

진행과정

The Timeline

약 3주간 진행된 첫 포트폴리오 과정을 이곳에 기록해본다.
HTML와 CSS, 제이쿼리를 입문하는 단계에서 제작한 쇼핑몰 포트폴리오다.



주제선정_

About Jo Malone London

고급 *니치^{Niche}향수, 조 말론 런던

영국 정통의 향수 &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조 말론 런던은 브리티시 정통 스타일의 독창적이고 품격 높은 부티크 향수 브랜드이다.

1994년에 탄생한 조 말론 런던은 모던한 브리티시 스타일을 대변하며 전세계적으로 사랑 받고 있다.

*니치(Niche): 이탈리아어 '니키아'(Nicchia)에서 유래.
특별하고 소중한다는 뜻으로 현재는 개성이 강한 프리미엄 향수를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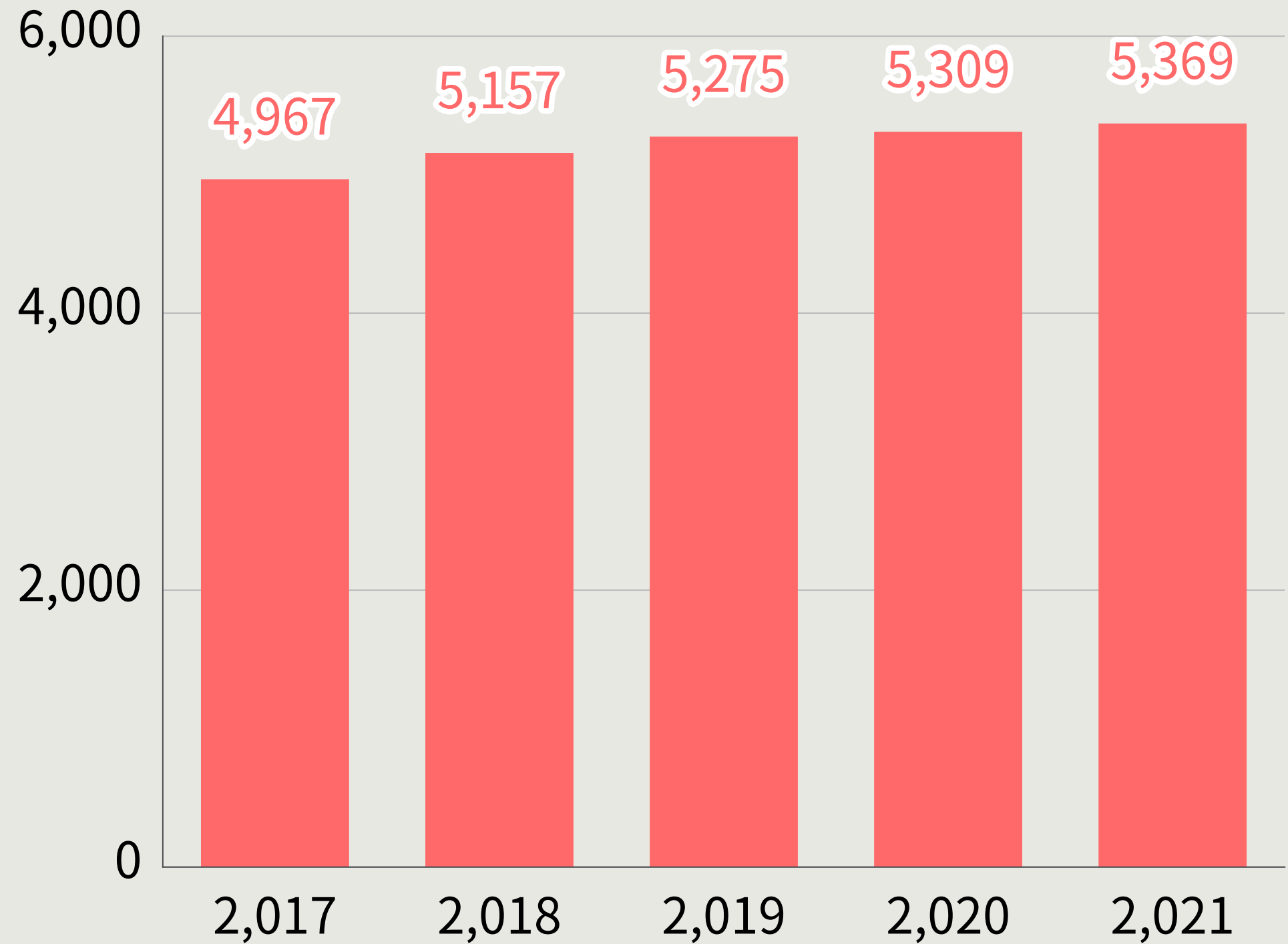
시장분석_

향수 & 향수 시장

나만의 향, 품격을 뿌리다

니치 향수는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의 소비 성향과 맞물려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국내 프리미엄 향수시장 규모는 2013년 4408억원에서 지난해 5300억원까지 성장했다.



■ 국내 프리미엄 향수 시장 규모

단위: 억 원, 자료출처: 유로모니터



콘셉트 설정

잉글리시 피어 & 프리지아

조 말론 런던의 다양한 제품 중 스테디 셀러인 잉글리시 피어 & 프리지아를 홈페이지 메인 제품으로 선택했다.

서브 제품으로는 메인 제품과 반대 색상인 리미티드 에디션을 골랐다. 반대되는 색상이기 때문에 서로 돋보이게 해주며, 반대 색상임에도 한 페이지에서 봤을 때 색감이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서브 제품,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에디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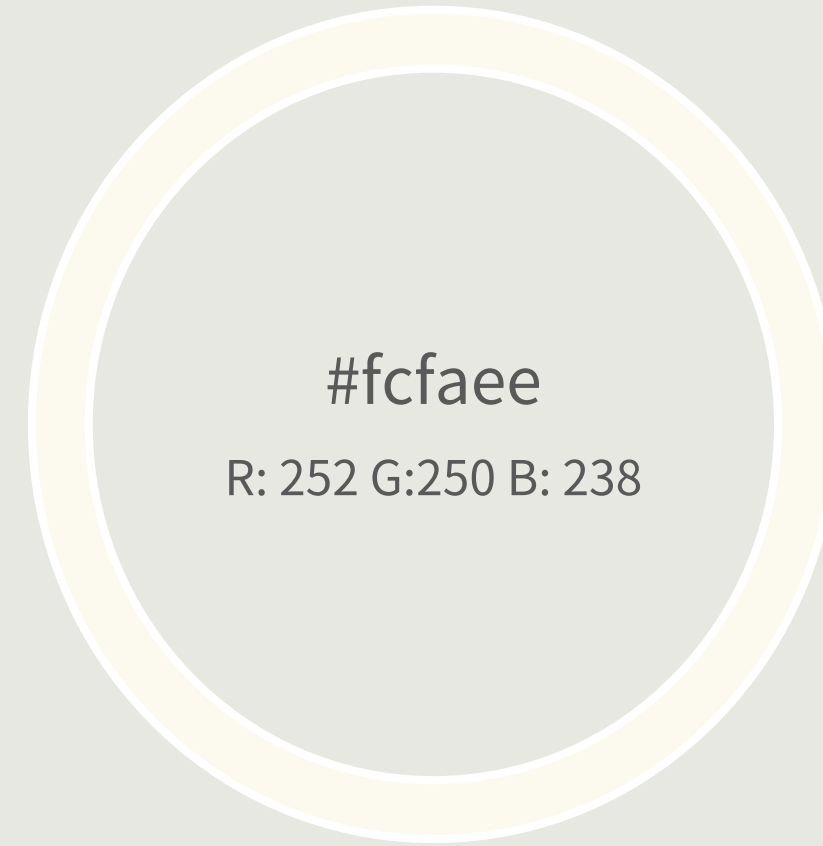
녹색 계열과 난색 계열로 메인 제품과 반대되는 색상이지만 한 페이지에서 봤을 때 서로 돋보이게 해주면서도 한데 어우러지는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서브 제품으로 결정했다.

컬러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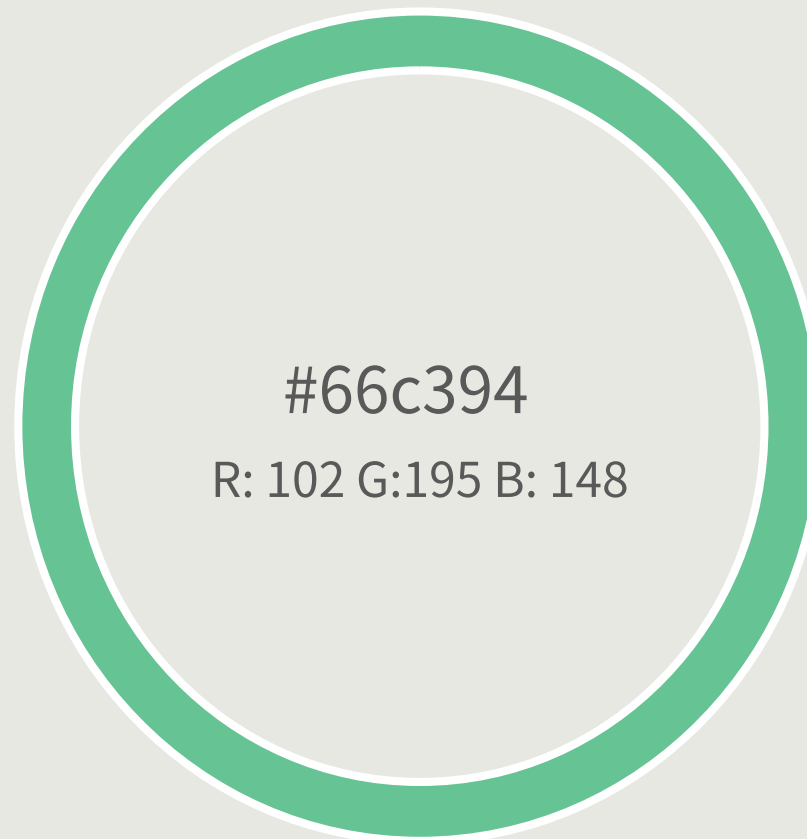
Color Table

자연을 담은 조 말론 런던 향수

조 말론 런던은 자연에서 나는 재료로 향수를 만든다.
브랜드의 시그니처를 담기 위해 자연을 모방한 컬러를 채택했다.
홈페이지 메인 제품으로 선택한 잉글리시 피어 & 프리지아와
매칭되는 컬러이기도 하다.



Main Color



Sub Color



페르소나

조말론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형섭

영업사원

29세 / 중소기업 근무

거래처와 잦은 미팅에 회식으로 매번 양복 빨래를 할 수 없어서 고민이라는 이형섭 씨

“
섬유탈취제 보다 거래처 미팅에 도움되는 고급스런 향기가 좋지”



김윤미

호텔리어

33세 / 고급 호텔 프런트 근무

고급 호텔 프런트로 근무처를 옮기게 되면서 쓰던 향수를 바꾸고 싶은 김윤미 씨

“
프런트는 우리 호텔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 향수나 쓸 수는 없어”



박현지

대학생

25세 / 대학교 졸업반

대학생 티를 벗고 하루 빨리 기업에 합격하여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 박현지 씨

“
면접관들을 사로잡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개성적인 향수가 필요해”

이형섭

영업사원

성격

열정적

진취적

이성적

라이프스타일

중소기업 영업사원인 이형섭 씨는 거래처와 잦은 미팅과 접대로 고민 중이다. 매번 거래처 접대 후 양복 빨래를 할 수 없어서 섬유 탈취제를 뿌린다. 열성적인 성격의 이형섭 씨는 자신이 영업하는 회사 제품에 자부심이 있고, 자신이 회사의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중적인 섬유 탈취제 향기를 풍긴다면 회사 제품이 싸구려로 느껴질까봐 걱정이다.

바라는 점

"내가 파는 제품이 고급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향기가 대중적이지 않고 특별한 중고가의 브랜드 향수였으면 좋겠어."

김윤미

호텔리어

성격

성숙한

차분한

외향적

라이프스타일

최근 고급 호텔로 이직해서 프런트 업무를 맡게 된 김윤미 씨는 그동안 중저가 향수만을 썼지만 직장 이미지에 맞는 중고가 향수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 이직한 호텔 업무에 적응하느라 백화점에 들릴 시간이 없는 것이 큰 고민이다. 어쩔 수 없이 각 브랜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했으나 그림 없이 문자로만 서술된 향수가 어떤 향기인지 알 수 없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 아직도 구매를 고민 하고 있다.

바라는 점

"사이트를 봐도 전문용어가 많아서 어떤 향기인지 잘 모르겠어. 일일이 샘플을 요청할 수도 없고. 적어도 그림이 있으면 편할텐데."

박현지

대학생

성격

활동적

외향적

개성적

라이프스타일

졸업반인 박현지 씨는 빨리 취직을 하고 싶어한다. 얼른 돈을 벌어서 자신을 더 가꾸고 싶기 때문이다. 박현지 씨는 대중의 유행을 따르는 것 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많다. 또한 면접관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겨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우연히 SNS에서 고급 니치향수를 알게 된 후 오프라인 편집샵에 간 박현지 씨는 마음에 드는 조 말론 런던 향수 재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온라인으로 주문하기로 한다.

바라는 점

"조 말론 런던 사이트에 들어가봤는데, 홈페이지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더라! 내가 본 향수 말고 다른 제품을 보고 싶어도 뭐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고급 브랜드 향수면 사이트도 잘 정리 되어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페르소나

조말론을 사랑하는 사람들

잠재적 소비자들이 조 말론 런던에 원하는 것

1

특별함을 중시하는 중고가의 니치 향수 브랜드

2

전문 용어로 향기를 묘사하는 대신 그림을 넣어 한눈에 향기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향수 사이트

3

중고가 니치 향수 브랜드에 걸맞게 홈페이지도 세련되며, 판매 상품이 잘 정리된 사이트

4

상품과 설명이 어우러져서 홈페이지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는 레이아웃

5

현재 판매 상품 뿐만 아니라 이벤트, 시즌별 한정 상품 등 역시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레이아웃

레이아웃_

와이어 프레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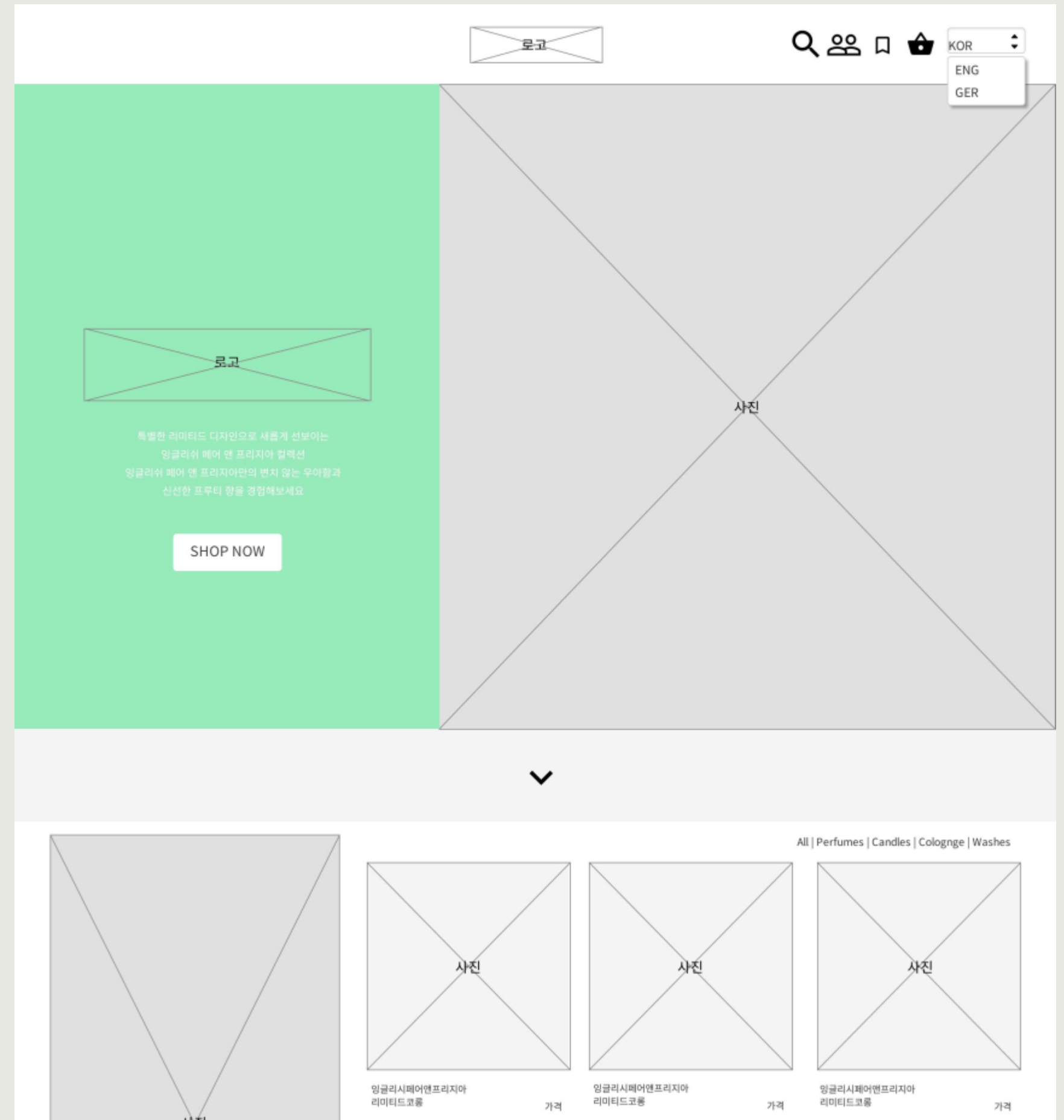
메인 페이지 와이어 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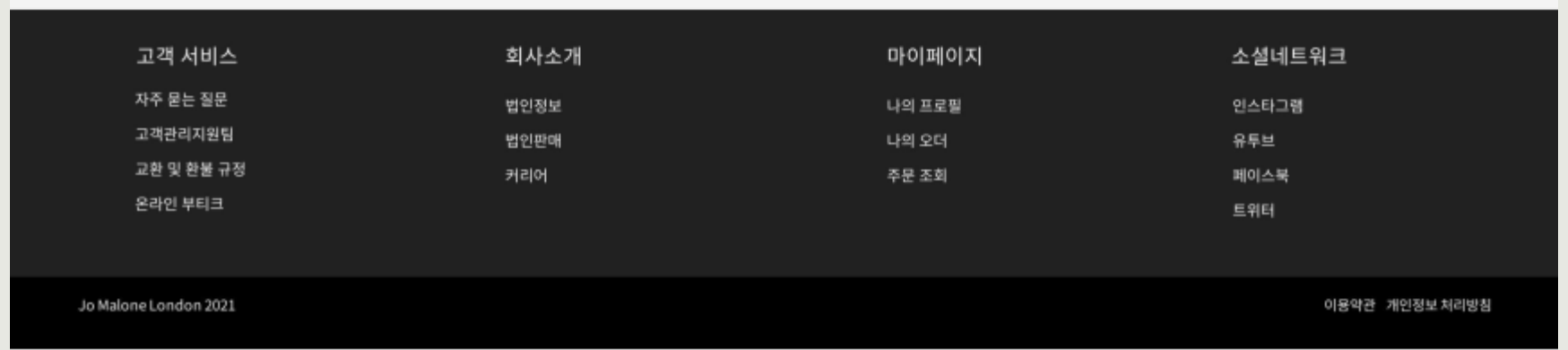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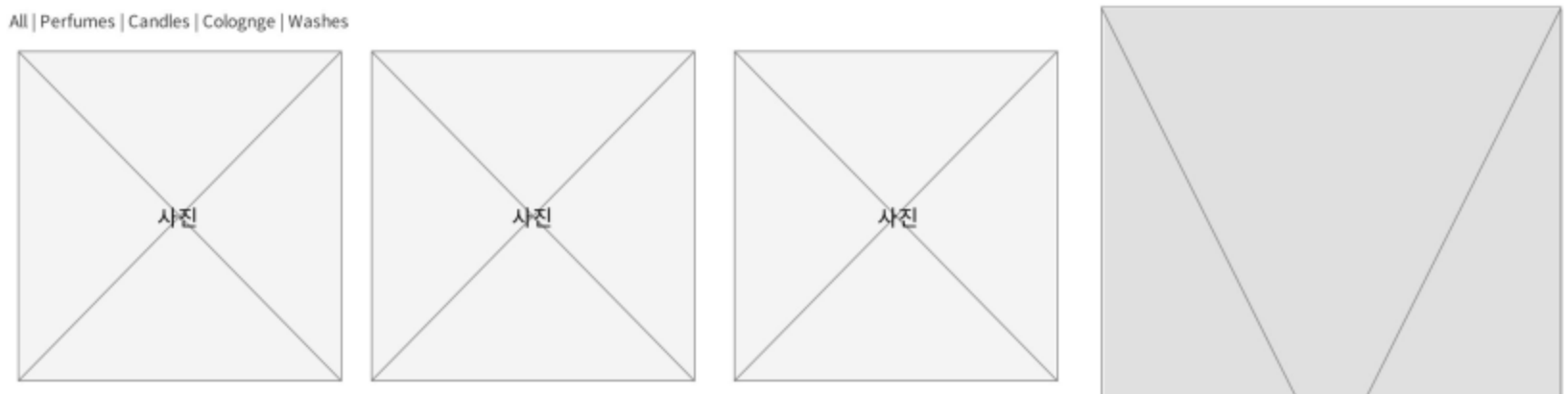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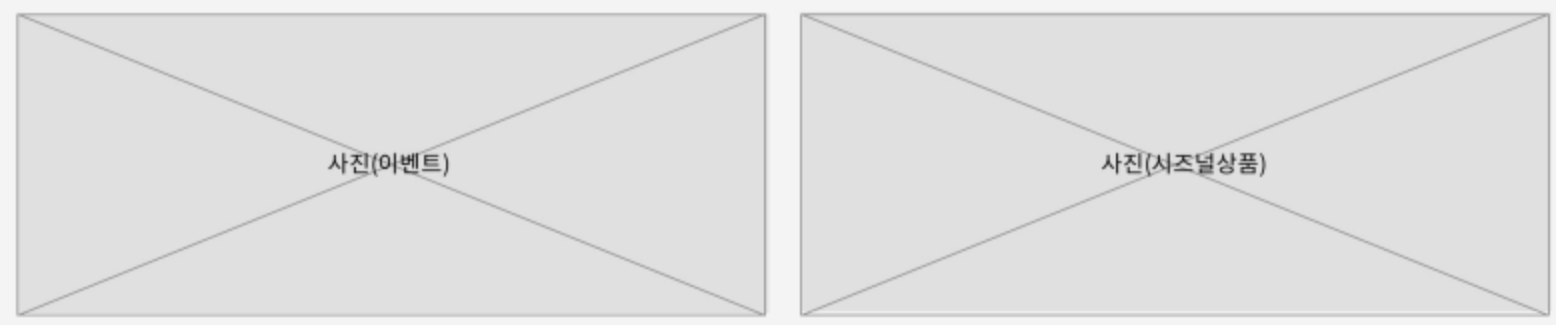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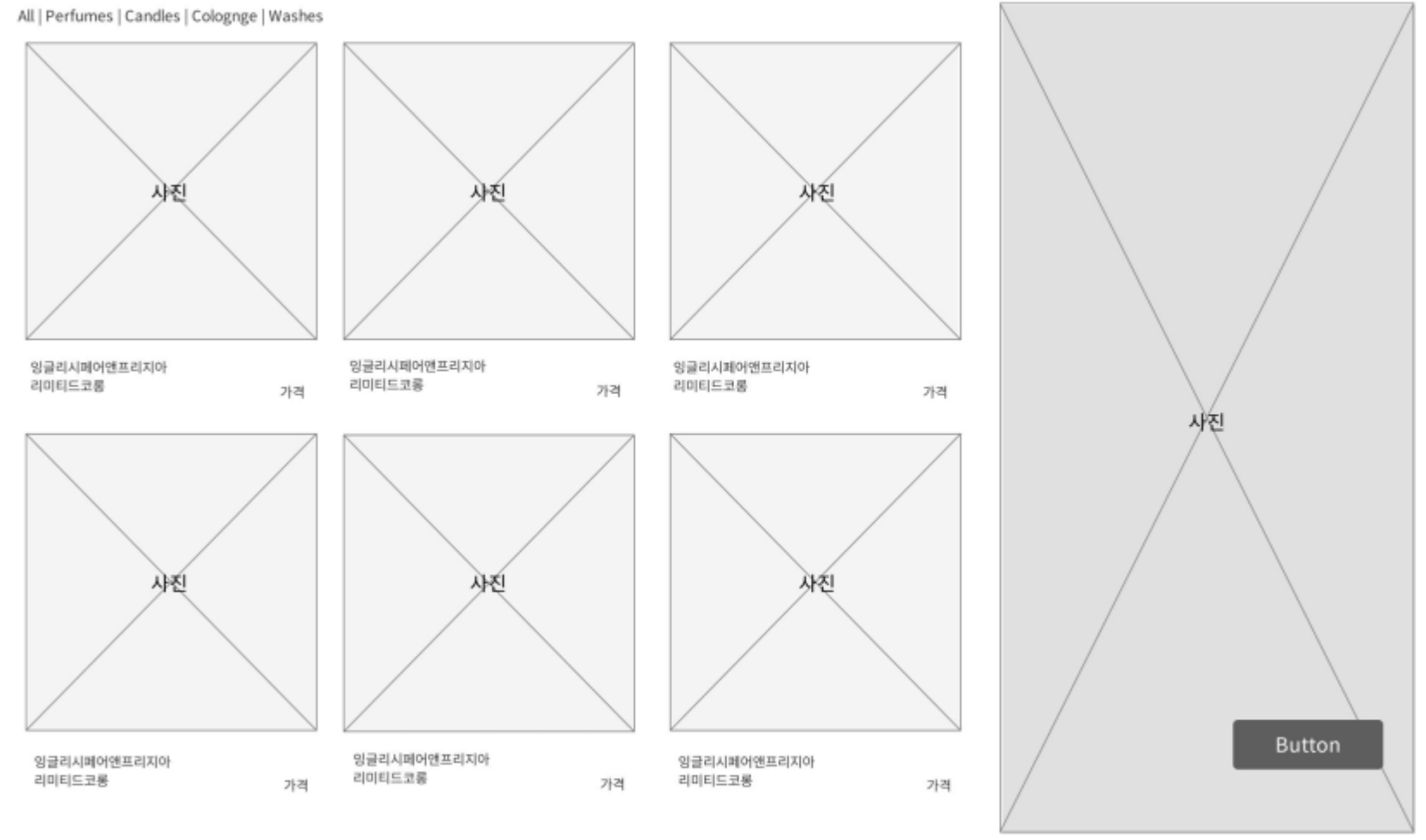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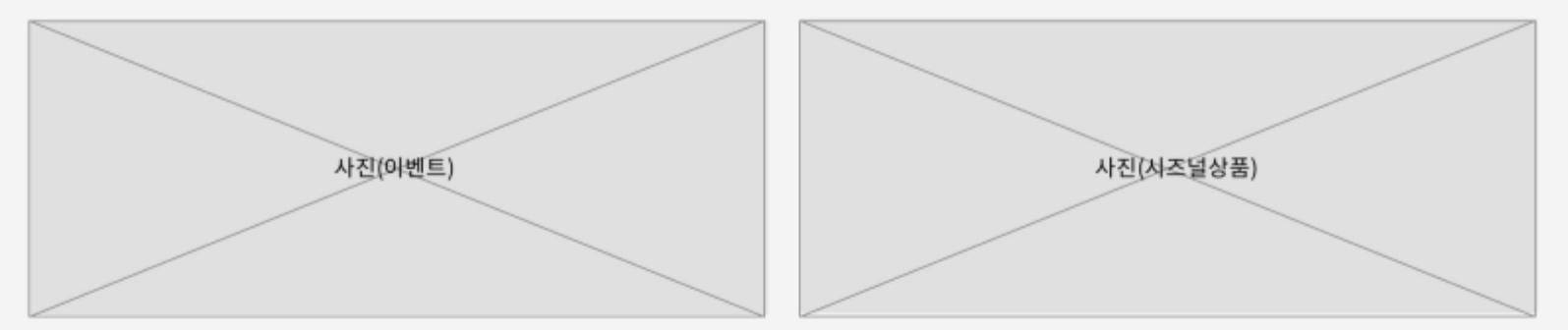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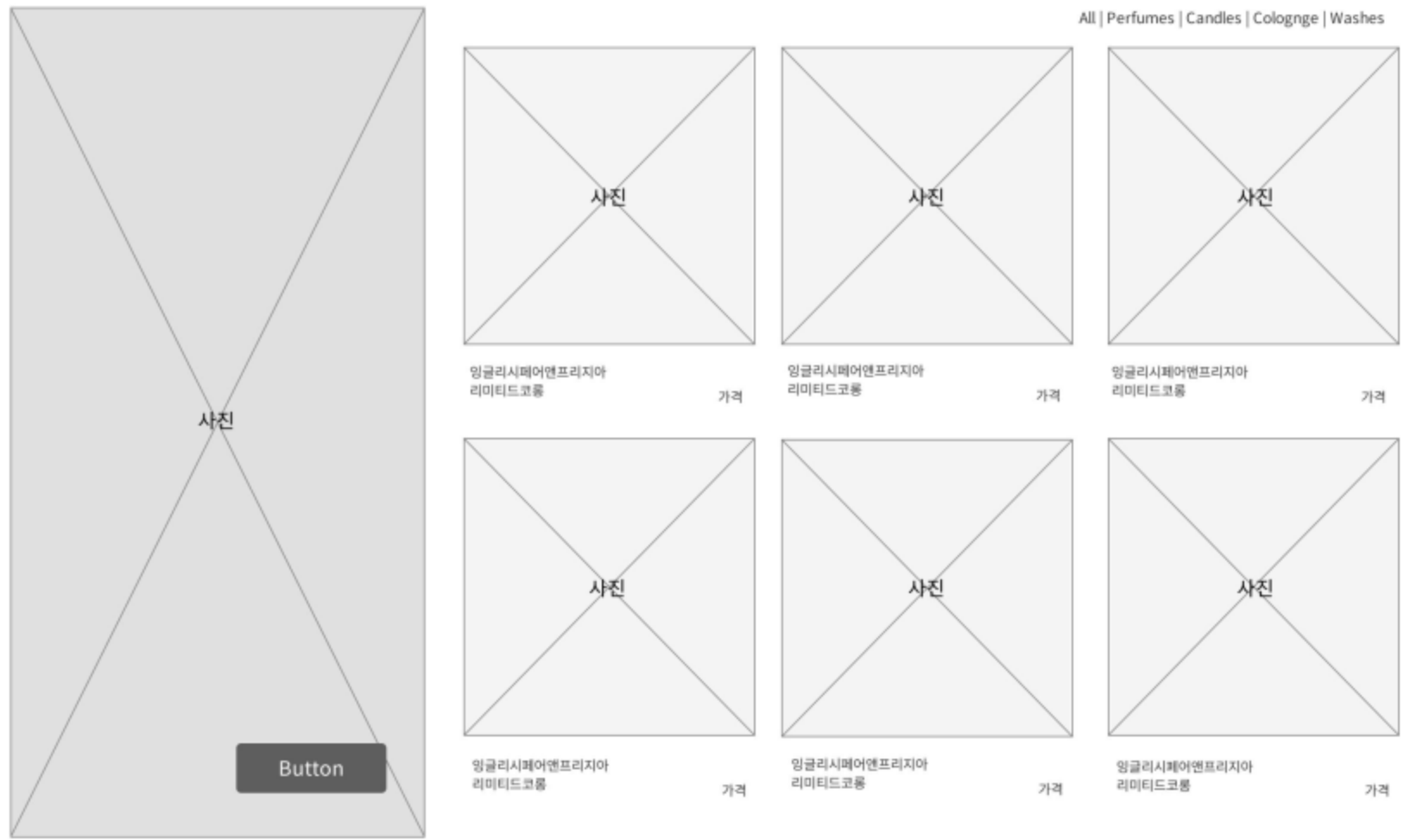
메인 페이지에서 만나는 조 말론 런던의 모든 상품

기존 조 말론 런던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종종 숨겨져있는 상품을 찾아 들어가는 번거로운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소비자의 번거로움 없이 메인 페이지에서 전체 상품을 볼 수 있다.

메인 페이지 상단에 검색창도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레이아웃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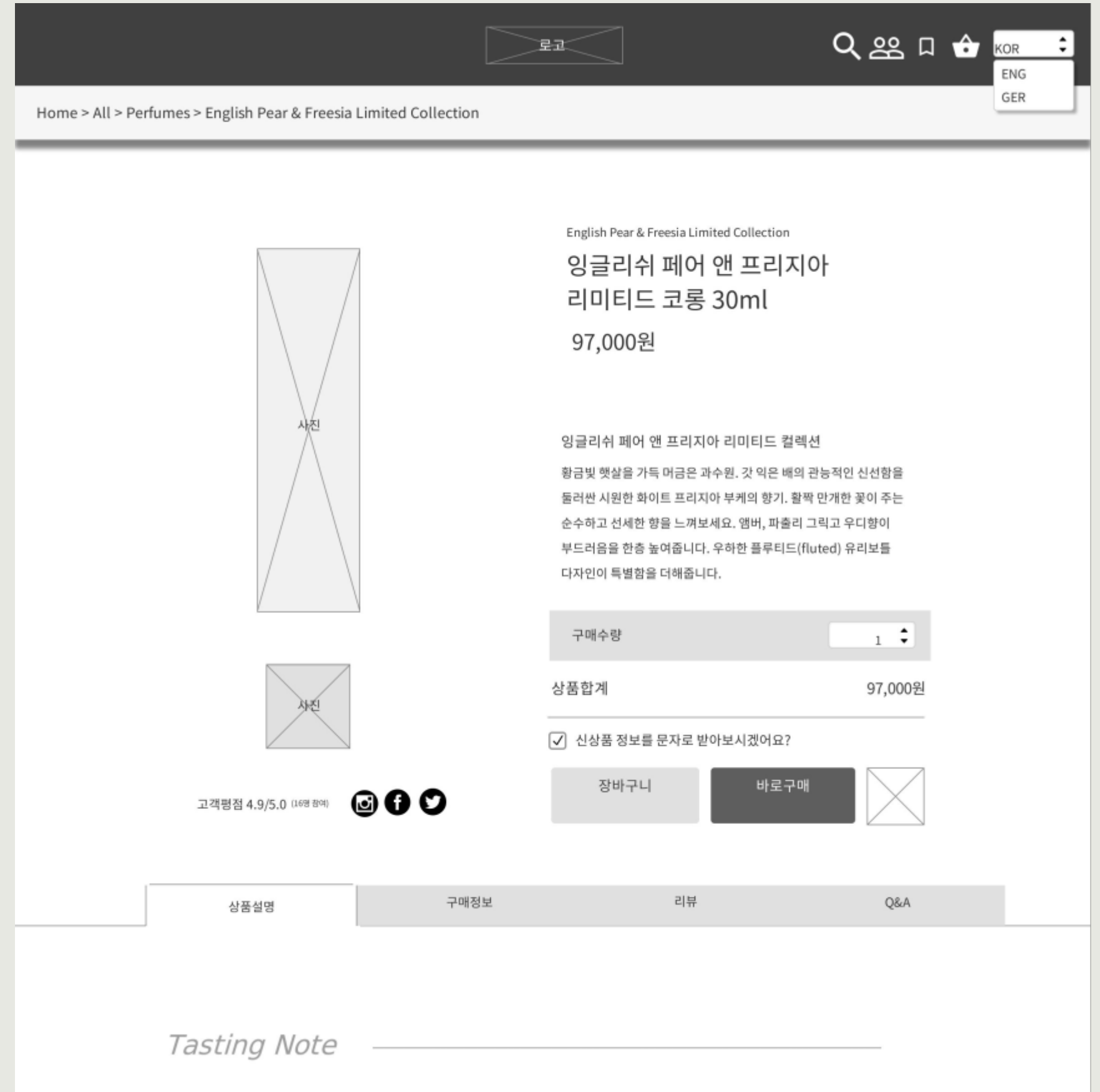
와이어 프레임02

서브 페이지 와이어 프레임

서브 페이지 가독성으로 소비자를 사로잡다

기존 조 말론 런던의 서브 페이지는 가독성이 가장 큰 문제였다. 상품 설명과 상품 이미지, 홍보 이미지와 동영상, 고객 리뷰는 구분 없이 뒤섞여있었고 Q&A는 찾을 수조차 없었다.

이런 이유로 서브 페이지 상품 이미지 하단에 상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메뉴를 배치하여 가독성을 극대화했다.



Tasting Note



탑 노트_ 킹 윌리엄 페어

흔히 쓰이지 않는 독특한
원료로 잘 영글은 신선한
배의 과즙에서 느껴지는
풍부하고 부드러운
과일향을 담았습니다.



하트 노트_ 프리지

전형적인 브리티시
스타일. 새하얀
프리지아에서 느껴지는
섬세하고도 독특한 향이
미들 노트를 가득
채워줍니다.



베이스 노트_ 파출리

감각적이면서도 깊고
우디한 노트로 잔향을
오래 지속시켜 줍니다.

How to use?

팔목, 목 그리고 맥박이 뛰는 곳에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체온 덕분에 시간이 지날 수록 은은한 향기를 선사합니다.
단독으로 사용해도 완벽하지만, 다른 코롱 혹은 선호하는 바스 앤 바디 제품과 함께 센트 페어링하여 즐겨보세요.

component

전성분

변성알코올, 정제수, 향료, 리모넨,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리날롤, 제라니올, 헥실신남알,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ILN36265]

*제공된 성분은 동일 제품이라도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제품 포장의 성분을
참고하시거나 본사 고객관리지원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component

전성분

변성알코올, 정제수, 향료, 리모넨,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리날롤, 제라니올, 헥실신남알,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ILN36265]

*제공된 성분은 동일 제품이라도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제품 포장의 성분을
참고하시거나 본사 고객관리지원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삽입

고객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고객관리지원팀
교환 및 환불 규정
온라인 부티크

회사소개

법인정보
법인판매
커리어

마이페이지

나의 프로필
나의 오더
주문 조회

소셜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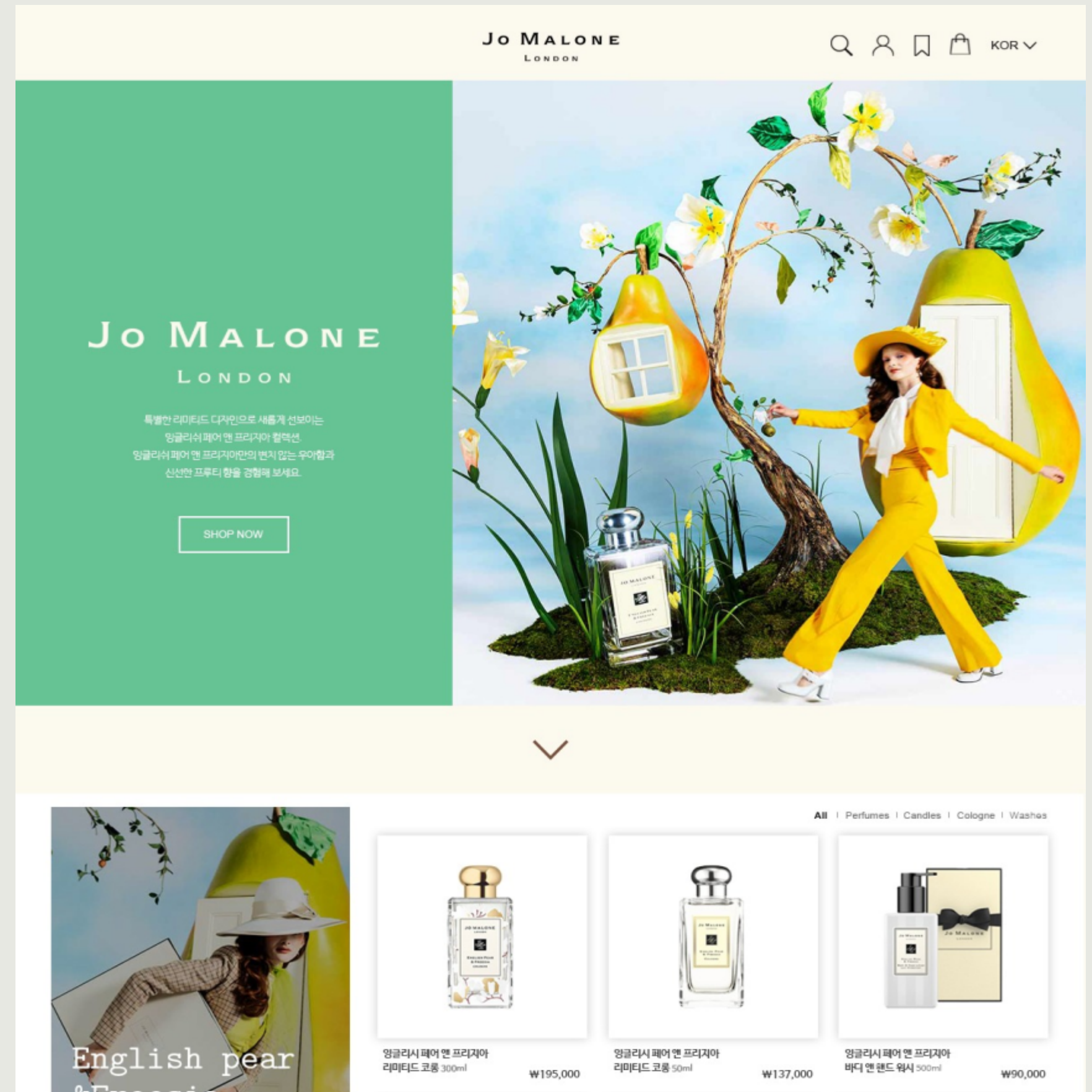
레이아웃_ 화면 구현이

메인 페이지 화면 구현

조 말론 런던, 자연에 녹아들다

조 말론 런던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만 그 중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기업 시그니처가 가장 잘 드러난 스테디셀러, '잉글리시 피어 앤 프리지아(English pear & Freesia)' 상품을 모티브로 하여 메인 컬러로 정했다.

자연을 닮은 청록과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베이지 컬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메인 페이지에서 상품을 보는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English pear
& Freesia

SHOP NOW

All | Perfumes | Candles | Cologne | Washes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
리미티드 코롱 300ml
₩195,000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
리미티드 코롱 50ml
₩137,000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
바디 앤 핸드 워시 500ml
₩90,000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
바디 크림 175ml
₩108,000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
홈 캔들 200g
₩92,000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
리미티드 코롱 30ml
₩97,000



EVENT



SEASONAL

All | Perfumes | Candles | Cologne | Was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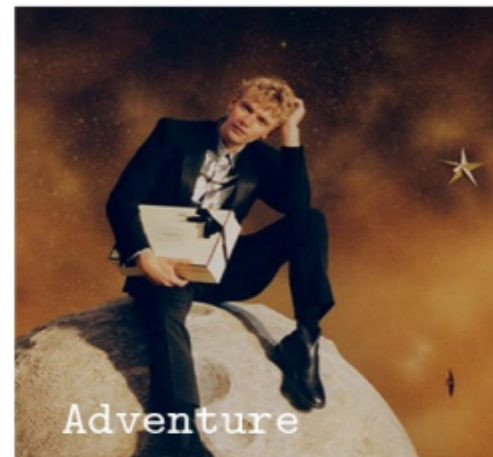
오렌지 버터 코롱 300ml
₩205,000



오렌지 버터 코롱 100ml
₩158,000



포메그레나이드 노와크
리미티드 코롱 300ml
₩207,000



Adventure

All | Perfumes | Candles | Cologne | Washes



오렌지 버터 코롱 300ml
₩205,000



오렌지 버터 코롱 100ml
₩158,000



포메그레나이드 노와크
리미티드 코롱 300ml
₩207,000



우드세이지 앤 록솔드
코롱 50ml
₩98,000



오렌지버터 홈 캔들 200mg
₩96,000



오렌지버터 홈 캔들 600mg
₩135,000



Adventure
Among The Stars
LIMITED EDITION

SHOP NOW

고객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고객관리자유티칭
교환 및 환불 규정
온라인 부티크

회사 소개

법인 정보
법인 판매
커리어

마이페이지

나의 프로필
나의 오더
주문 조회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 Jo Malone London 2021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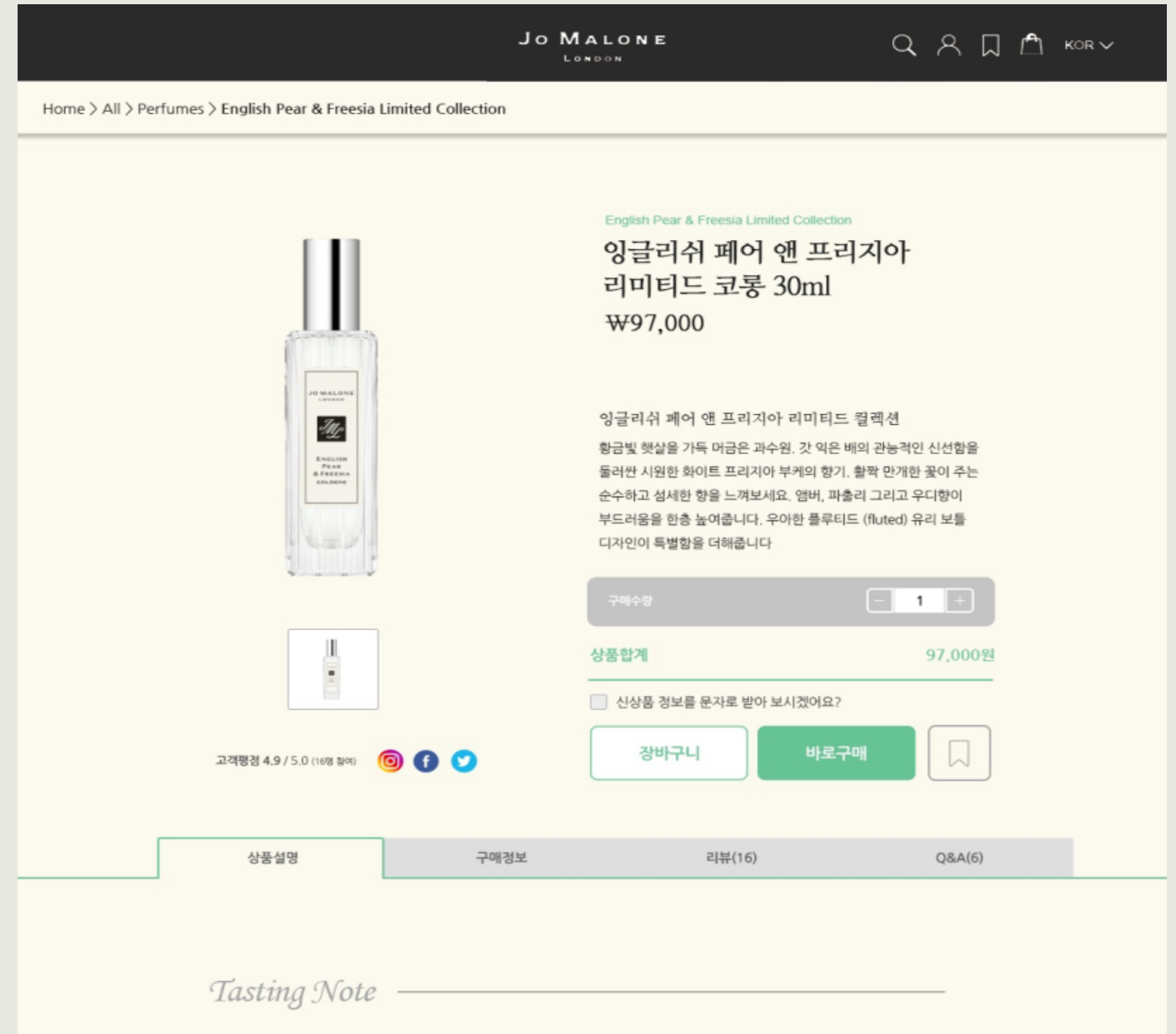
레이아웃_ 화면 구현02

서브 페이지 화면 구현

가독성을 높인 서브 페이지

메인 페이지와 동일한 상품을 모티브로 한 컬러를 메인으로 잡고 서브 페이지 화면을 구현하여 통일성을 줬다.

또한, 서브 페이지는 채도가 낮은 회색을 새롭게 사용하였다. 채도 낮은 회색의 활용도를 높여 상품 사진에 어떤 컬러의 상품이 삽입 되어도 상품의 개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서브 페이지 가독성은 그대로 유지시켰다.



Tasting Note



탑 노트_ 킹 윌리엄 페어

흔히 쓰이지 않는 독특한
원료로 잘 영글은 신선한
배의 과즙에서 느껴지는
풍부하고 부드러운
과일향을 담았습니다.



하트 노트_ 프리지

전형적인 브리티시
스타일. 새하얀
프리지아에서 느껴지는
섬세하고도 독특한 향이
미들 노트를 가득
채워줍니다.



베이스 노트_ 파출리

감각적이면서도 깊고
우디한 노트로 잔향을
오래 지속시켜 줍니다.

How to use?

팔목, 목 그리고 맥박이 뛰는 곳에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체온 덕분에 시간이 지날 수록 은은한
향기를 선사합니다. 단독으로 사용해도 완벽하지만, 다른 코롱 혹은 선호하는 배스 앤 바디 제품과
함께 센트 페어링하여 즐겨보세요.

component

전성분
변성알코올, 정제수, 향료, 리모넨,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리날롤, 제라니올, 헥실신남알,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ILN36265]

*제공된 성분은 동일 제품이라도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제품 포장의 성분을
참고하시거나 본사 고객관리지원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How to use?

팔목, 목 그리고 맥박이 뛰는 곳에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체온 덕분에 시간이 지날 수록 은은한
향기를 선사합니다. 단독으로 사용해도 완벽하지만, 다른 코롱 혹은 선호하는 배스 앤 바디 제품과
함께 센트 페어링하여 즐겨보세요.

component

전성분
변성알코올, 정제수, 향료, 리모넨,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리날롤, 제라니올, 헥실신남알,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ILN36265]

*제공된 성분은 동일 제품이라도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제품 포장의 성분을
참고하시거나 본사 고객관리지원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삽입

고객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고객관리지원팀
교환 및 환불 규정
온라인 부티크

회사 소개

법인 정보
법인 판매
커리어

마이페이지

나의 프로필
나의 오더
주문 조회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화면구현_

코드 구현

메인 페이지 코드 구현

```
46 <div class="middle"><a href="#new_item"></a></div>
47
48
49
50 <div id="new_item">
51   <div class="new_item_box">
52     <div class="new_category"><a href="#"><b>All</b></a> | <a href="#">Perfumes</a> | <a href="#">Candles</a> | <a
53       href="#">Cologne</a> | <a href="#">Washes</a></div>
54     
55     <div class="shopnowpear"><a href="jomalone_hompage_sub.html">SHOP NOW</a></div>
56
57
58     <div class="new_item_box_mini">
59       <a href="#"></a><br>
60       <span><a href="#">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br>
61         | 리미티드 코롱 <small>300ml</small></a></span>
62       <p>₩195,000</p>
63     </div>
64
65     <div class="new_item_box_mini">
66       <a href="#"></a><br>
67       <span><a href="#">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br>
68         | 리미티드 코롱 <small>50ml</small></a></span>
69     </div>
70
71     <div class="new_item_box_mini">
72       <a href="#"></a><br>
73       <span><a href="#">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br>
74         | 워시 <small>500ml</small></a></span>
75     </div>
76
77     <div class="new_item_box_mini">
78       <a href="#"></a><br>
79       <span><a href="#">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br>
80         | <small>175ml</small></a></span>
81     </div>
82
83     <div class="new_item_box_mini">
84       <a href="#"></a><br>
85       <span><a href="#">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br>
86         | 홈 캔들 <small>300ml</small></a></span>
87       <p>₩92,000</p>
88     </div>
89
90
```



```

1  <!DOCTYPE html>
2  <html lang="ko">
3
4
5  <head>
6    <title> Jo Malone London</title>
7    <meta charset="utf-8">
8
9    <link rel="stylesheet" href="css/common.css">
10   <link rel="stylesheet" href="css/sub.css">
11
12   <link rel="preconnect" href="https://fonts.googleapis.com">
13   <link rel="preconnect" href="https://fonts.gstatic.com" crossorigin>
14   <link href="https://fonts.googleapis.com/css2?family=Dancing+Script:wght@700&display=swap" rel="stylesheet">
15
16
17   <script src="https://ajax.googleapis.com/ajax/libs/jquery/3.6.0/jquery.min.js"></script>
18   <script>
19     $(function() {
20       $(".perfume_set_small").click(function(){
21         $(".perfume_set").fadeIn();
22         $(".perfume").hide();
23       });
24
25       $(".perfume_small").click(function(){
26         $(".perfume").fadeIn();
27         $(".perfume_set").hide();
28       });
29     });
30   </script>
31
32 </head>
33
34
35 <body>
36   <header>
37     <div id="logo"><a href="index.html">KOR</option>
41       <option value="ENG">ENG</option>
42       <option value="GER">GER</option>
43     </select>
44

```

화면구현_

코드 구현

서브 페이지 코드 구현

```

17   <script src="https://ajax.googleapis.com/ajax/libs/jquery/3.6.0/jquery.min.js"></script>
18   <script>
19     $(function() {
20       $(".perfume_set_small").click(function(){
21         $(".perfume_set").fadeIn();
22         $(".perfume").hide();
23       });
24
25       $(".perfume_small").click(function(){
26         $(".perfume").fadeIn();
27         $(".perfume_set").hide();
28       });
29     });
30   </script>

```



```

343 <div class="content">
344   <div class="content_box4">
345     <ul>
346       <li><a href="#TastingNote">제품설명</a></li>
347       <li><a href="#howtouse_text">사용방법</a></li>
348       <li><a href="#opinion_text">사용후기</a></li>
349       <li><a href="#QandA"><div id="QandA">Q&A</div></a></li>
350     </ul>
351   </div>
352 </div>

```

```

343 <div class="content">
344   <div class="content_box4">
345     <ul>
346       <li><a href="#TastingNote">제품설명</a></li>
347       <li><a href="#howtouse_text">사용방법</a></li>
348       <li><a href="#opinion_text">사용후기</a></li>
349       <li><a href="#QandA"><div id="QandA">Q&A</div></a></li>
350     </ul>
351   </div>
352 </div>

```

```

359   <div id="QandA_tablebox">
360     <table>
361       <tr>
362         <th>3</th>
363         <td><a href="#">환불 신청 했는데 언제쯤</a></td>
364         <td>하**</td>
365         <td>2020.2.14</td>
366         <td>답변완료</td>
367       </tr>
368     </table>
369     <tr>
370       <th>2</th>
371       <td><a href="#">교환 원합니다</a></td>
372       <td>송**</td>
373       <td>2019.07.30</td>
374       <td>답변완료</td>
375     </tr>
376   </table>
377   <tr>
378     <th>1</th>
379     <td><a href="#">생일 선물 배송 빨리요</a></td>
380     <td>유**</td>
381     <td>2017.04.08</td>
382     <td>답변완료</td>
383   </tr>
384 </table>
385 <button>문의 작성하기</button>
386 </div>
387 </div>
388 </div>

```

```

353
354 <div class="QandA">
355   <div class="QandA_box">
356     <p class="QandA_text"> Q&A</p>
357     <div class="QandA_line"></div>
358   </div>
359   <div id="QandA_tablebox">
360     <table>
361       <tr>
362         <th>3</th>
363         <td><a href="#">환불 신청 했는데 언제쯤</a></td>
364         <td>하**</td>
365         <td>2020.2.14</td>
366         <td>답변완료</td>
367       </tr>
368     </table>
369     <tr>
370       <th>2</th>
371       <td><a href="#">교환 원합니다</a></td>
372       <td>송**</td>
373       <td>2019.07.30</td>
374       <td>답변완료</td>
375     </tr>
376   </table>
377     <tr>
378       <th>1</th>
379       <td><a href="#">생일 선물 배송 빨리요</a></td>
380       <td>유**</td>
381       <td>2017.04.08</td>
382       <td>답변완료</td>
383     </tr>
384   </table>
385   <button>문의 작성하기</button>
386 </div>
387 </div>
388 </div>

```

평가 및 후기

모든 웹디자이너에게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내가 잘 때 누군가는 일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신기하지만 당연한 사실이다. 웹디자인도 그렇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웹사이트에서 단순히 버튼 하나를 클릭할 때 누군가는 이 버튼을 좀 더 예쁘고 기능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웹사이트에서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한 모든 것들, 이게 어려워? 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은 전부 어려웠다. 웹사이트를 이루는 하나하나가 태그였고, CSS였고 jQuery였으며 심지어 javascript를 적용하기까지 했다. 컴퓨터를 이해하는 일은 힘들었고 대화하는 일은 더 힘들었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에 재능이 있다면 나는 아마 0점이 아닐까 하고 자책도 했다.

첫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어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재밌었다. 물론 누군가에게 50점 밖에 안되는 기초적인 기초 쇼핑몰처럼 보일 것이다. 당연하다. 제작한 나도 아쉬운 점이 많이 보인다. 욕심은 100점이었으나 현실은 결국 50점이다.

그러나 3주간 내가 배웠던 모든걸 다 쏟아부은 결과물이다. 아쉬운 점은 넘칠 정도로 있지만 '더 열심히 할걸'이란 후회는 없다. 코드 한줄 한줄이 노력의 결과였고, 미숙한 상태에서 코드를 작성하면서도 "이걸 적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며 조금 덜 미숙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첫 웹사이트 제작 발돋움치고는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주 싶다.

다음에 제작할 두번째 웹사이트는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아쉽지 않길 바라며 이만 후기를 마친다.



Thank you!